25×25mm

시타로엠서방정
(시타글립틴염산염수화물, 메트포르민염산염)

[이 약을 사용하기 전에 첨부된 문서를 주의깊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으신 후 버리지 마시고, 이 약과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의약품〕

혈당강하제

시타로엠서방정 50/500밀리그램, 50/1000밀리그램, (시타글립틴염산염수화물, 메트포르민염산염) 100/1000밀리그램

Sitaro M XR Tab. 50/500mg, 50/1000mg, 100/1000mg
(Sitagliptin hydrochloride monohydrate, Metformin hydrochloride)

【원료약품 및 그 분량】 1정 중
■ 시타로엠서방정50/500밀리그램
• 유효성분: 시타글립틴염산염수화물(Sitagliptin hydrochloride monohydrate)(별규)
---------- 56.70밀리그램(시타글립틴으로서 50밀리그램)
메트포르민염산염(Metformin hydrochloride)(EP) ------- 500.00밀리그램
• 첨가제(타르색소): 정색1호, 정색2호
• 기타첨가제: 규화미결정셀룰로오스, 무수인산수소칼슘, 스테아릴푸마르산나트륨, 오파드라이 QX 321A65008 블루,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나트륨, 콜로이드성이산화규소, 크로스카멜로오스나트륨, 히드록시프로필셀룰로오스히프로멜로오스
■ 시타로엠서방정50/1000밀리그램
• 유효성분: 시타글립틴염산염수화물(Sitagliptin hydrochloride monohydrate)(별규)
---------- 56.70밀리그램(시타글립틴으로서 50밀리그램)
메트포르민염산염(Metformin hydrochloride)(EP) ------- 1000.00밀리그램
• 첨가제(타르색소): 정색2호
• 기타첨가제: 규화미결정셀룰로오스, 무수인산수소칼슘, 스테아릴푸마르산나트륨, 오파드라이 QX 321A65008 블루,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나트륨, 콜로이드성이산화규소, 크로스카멜로오스나트륨, 히드록시프로필셀룰로오스히프로멜로오스
■ 시타로엠서방정100/1000밀리그램
• 유효성분: 시타글립틴염산염수화물(Sitagliptin hydrochloride monohydrate)(별규)
---------- 113.40밀리그램(시타글립틴으로서 100밀리그램)
메트포르민염산염(Metformin hydrochloride)(EP) ------- 1000.00밀리그램
• 첨가제(타르색소): 정색1호, 정색2호
• 기타첨가제: 규화미결정셀룰로오스, 무수인산수소칼슘, 스테아릴푸마르산나트륨, 오파드라이 QX 321A65008 블루,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나트륨, 콜로이드성이산화규소, 크로스카멜로오스나트륨, 히드록시프로필셀룰로오스히프로멜로오스

【성 상】
■ 시타로엠서방정50/500밀리그램: 밝은 파란색으로 양면이 불록한 타원형의 서방성 필름코팅정
■ 시타로엠서방정50/1000밀리그램: 밝은 녹색으로 양면이 불록한 타원형의 서방성 필름코팅정
■ 시타로엠서방정100/1000밀리그램: 밝은 파란색으로 양면이 불록한 타원형의 서방성 필름코팅정

【효능 · 효과】
이 약은 시타글립틴과 메트포르민의 병용투여가 적절한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조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식사요법 및 운동요법의 보조제로 투여한다.

【용법 · 용량】
통상 1일 1회 식사 직전 또는 식사 중에 투여한다. 1일 2회 투여하는 경우 아침과 저녁 식사 중에 투여한다.
이 약은 메트포르민으로 인한 위장관계 이상반응을 줄이기 위해서 식사와 함께 1일 1회 또는 저녁식사에 복용하며, 점진적으로 용량을 증량한다. 서방성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 약은 쪼개거나 부수거나 갈거나 씹지 말고 삼켜서 한다. 이 약이 불완전하게 용해되어 대변으로 배출되는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대변으로 배설된 물질에 약물의 주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다. 만약 환자가 이 약이 대변 중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보고할 경우, 의료진은 혈당이 적절히 조절되고 있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사용상의주의항, 5. 일반적 주의 참조)
이 약 100/1000mg 서방정은 1일 1회, 1회 1정을 복용한다.
이 약 50/500mg 서방정 또는 50/1000mg 서방정을 복용하는 환자는 1일 1회, 1회 2정을 동시에 복용한다.
1. 최초 메트포르민으로 치료받고 있지 않은 환자
이전 당뇨병 약물치료를 받은 경험이 없으며 단독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이 어려운 경우 또는 시타글립틴 단독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 이 약의 초기용량은 1일 총량으로 시타글립틴 100mg 및 메트포르민 1000mg이다. 초기용량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 메트포르민으로 인한 위장관계 이상반응을 줄이기 위해 메트포르민의 1일 최고 권장용량인 2000mg까지 점진적으로 용량을 증량할 수 있다.
시타글립틴의 용량을 감량투여하고 있는 신장애 환자는 이 약으로 전환해서는 안 된다(사용상의주의항 2. 다음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말 것 참조).
2. 메트포르민으로 치료를 받고있는 환자
- 메트포르민 단독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환자에 대한 이 약의 권장 초기용량은 1일 총량으로 시타글립틴 100mg과 메트포르민 기존 투여 용량이다.
- 시타글립틴과 메트포르민의 병용요법에서 이 약으로 전환하는 환자는 시타글립틴과 메트포르민의 기존 투여 용량으로 시작할 수 있다.
- 메트포르민의 기존 투여 용량으로 속방정을 1일 2회, 1회 850mg 또는 1000mg을 투여하던 환자는 이 약 50/1000mg 서방정 1일 1회, 1회 2정 용량으로 시작할 수 있다.
3. 메트포르민과 설포닐우레아의 병용요법, 메트포르민과 인슐린의 병용요법, 메트포르민과 차이아졸리디온의 병용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
이 약의 초기용량은 1일 총량으로 시타글립틴 100mg이며, 메트포르민의 초기용량은 환자의 혈당치와 기존 투여용량이 고려되어야 한다. 메트포르민으로 인한 위장관계 이상반응을 줄이기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용량을 증량한다. 설포닐우레아 또는 인슐린 병용투여시에는 설포닐우레아 또는 인슐린 유발 저혈당 발생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설포닐우레아 또는 인슐린 용량의 감소를 고려할 수 있다(사용상의주의항 5. 일반적 주의 참조).
이전에 다른 경구용 혈당강하제로 치료하던 환자에서 이 약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토한 연구는 실시되지 않았다. 제2형 당뇨병 치료요법의 어떠한 변화도 혈당조절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하며 적절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한다.

신장애 환자
이 약은 중등도 신장애 stage 3a(크레아티닌 청소율[CrCl] ≥ 45 및 (60mL/min 또는 사구체 여과율(eGFR) ≥ 45 및 (60mL/min/1.73㎡) 환자 중, 유산신증 위험을 증가시킬만 한 다른 증상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용량 조절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다.
메트포르민의 시작용량은 1일 1회 1000mg 또는 850mg 투여(이므로, 이 약으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은 피한다. 메트포르민 최대 권장용량은 1일 1000mg이다. 신기능을 3~6개월 마다 주의깊게 관찰해야 한다. 만약 CrCl (45mL/min 또는 eGFR (45mL/min/1.73㎡으로 신기능이 감소되는 경우 이 약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간장애 환자
이 약은 메트포르민 성분으로 인해 간기능 장애 환자에게 투여해서는 안된다. (사용상의주의사항 2. 다음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말 것 참조).

【사용상의 주의사항】

1. 경고
시타글립틴
1) 과민반응: 시판 후 시타글립틴을 투여한 환자에서 중증의 과민반응이 보고되었으며, 이 반응은 아나필락시스 쇼크부종 및 스티븐스-존슨증후군을 포함한 바리형 피부질환을 포함한다. 이것은 불특정 다수의 인구집단으로부터 자발적으로 보고되었고 대략적으로 발생 빈도를 신뢰성 있게 예측하거나 약물노출과의 인과관계를 확립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이 반응의 시작은 약물 치료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발생하였으며, 첫 용량 이후에 보고된 것도 있다. 만약 과민반응이 의심되는 경우, 이 약을 중단하고 발생의 다른 잠재적인 이유를 평가하고 다른 당뇨 치료요법을 실시한다. (4. 이상반응, 2) 시판 후 이상반응 참 참조)
2) 췌장염: 시타글립틴을 투여한 환자에서 지명적/비지명적 출혈성 또는 괴사성 췌장염을 포함하는 급성 췌장염이 보고되었다. (4. 이상반응, 2) 시판 후 이상반응 참 참조)
메트포르민염산염
심한 유산산증: 약물 축적을 일으킬 수 있다. 유산산증으로 인한 사망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중등도(stage 3b) 및 중증의 신장애 환자(크레아티닌 청소율 (45mL/min 또는 사구체 여과율 (45mL/min/1.73㎡), 탈수, 심각한 감염, 심혈관계 허혈(쇽), 급성 심근경색, 패혈증과 같은 신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급성 상태
2) 급성 및 활안정형 심부전 환자
3) 방사선 요오드 조영물질을 혈관 내 투여하는 검사(예 : 정맥요로조영술, 정맥담관조영술, 혈관조영술, 조영제를 사용한 컴퓨터단층촬영술 등)를 받는 환자(급성신부전을 일으킬 수 있고, 이 약을 투여 받는 환자에서는 유산산증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검사가 계획된 환자 중 사구체여과율 (60mL/min/1.73㎡인 경우는 적어도 검사 시점 또는 시전에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해야 하고, 48시간 이내에는 재투여가 불가능하다. 신기능 재평가 후 추가 손상 위험이 없을 것으로 판명된 이후에만 치료를 재개한다. 중등도 신장애 환자의 경우(사구체여과율 ≥ 45 및 (60mL/min/1.73㎡), 이 약은 요오드화 조영제 투여 48시간 전 반드시 중단되어야 하며 48시간 이내에는 재투여가 불가능하다. 신기능 재평가 후 추가 손상 위험이 없을 것으로 판명된 이후에만 치료를 재개한다.)
4) 이 약이나 이 약의 성분에 대하여 아나필락시스 쇼크 혈관부종과 같은 과민반응이 알려진 환자(1. 경고 및 4. 이상반응, 2) 시판 후 이상반응 참 참조)
5) 제1형 당뇨병, 유산산증, 혼수를 수반하거나 그렇지 않은 당뇨병케톤산증을 포함하는 급성 또는 만성 대사성산증 환자 및 케톤산증의 병력이 있는 환자(제1형 당뇨병과 당뇨병케톤산증은 인슐린으로 치료한다.)
6) 당뇨병성 전혼수
7) 중증감염증 또는 중증 외상성 전신장애 환자(이러한 이 약의 처방은 일시적으로 중지되어야 하고 환자의 경구적 섭취가 협복되고 신기능이 정상으로 판명될 때 치료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사용상의주의항 2. 다음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말 것 참조).
8) 알코올중독증, 급성 알코올 중독증 환자(알코올은 대사작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9) 임신부 및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수유부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유산산증의 저혈당의 가능성이 있다.)
1) 불규칙한 식사, 식사 섭취량 부족
2) 격렬한 근육운동
3) 상호작용이 있는 약물을 투여하는 환자

4. 이상반응
1) 임상시험
임상시험은 광범위하고 다양한 조건 하에서 실시되므로 임상시험에서 관찰된 이상반응 발생률은 다른 약물의 임상시험에서의 비율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없으며, 실제 사용환경 하에서 관찰된 비율을 반영할 수 없다.
위약대조 임상시험에서 메트포르민을 단독투여하는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시타글립틴 100mg을 추가 시 내약성이 우수하였다. 시타글립틴과 메트포르민을 병용투여한 환자에서 보고된 것과 유사하였다.
시타글립틴과 속방형 메트포르민의 초기 요법
24주간 실시된 위약 대조 오인설계 임상시험(factorial trial)에서 시타글립틴 50mg과 속방형 메트포르민 500mg 또는 1,000mg을 1일 2회 초기병용 투여 시 인과관계 평가와 관계없이 5% 이상의 빈도로 보고되고 위약보다 빈번히 보고된 이상반응은 표 1과 같다.

표 1. 시타글립틴과 속방형 메트포르민의 초기병용요법: 인과관계 평가와 관계없이 5% 이상의 빈도로 보고되고 위약보다 빈번히 보고된 이상반응†

	환자수(%)			
	위약	시타글립틴 100mg 1일 1회	속방형 메트포르민 500 또는 1000mg씩 1일 2회†	시타글립틴 50mg씩 1일 2회 + 속방형 메트포르민 500 또는 1000mg씩 1일 2회†
	176명	179명	364명	372명
설사	7 (4.0)	5 (2.8)	28 (7.7)	28 (7.5)
상기도감염	9 (5.1)	8 (4.5)	19 (5.2)	23 (6.2)
두통	5 (2.8)	2 (1.1)	14 (3.8)	22 (5.9)

† Intent-to-treat피험자군
† 메트포르민 저용량, 고용량을 투여한 환자의 통합자료
속방형 메트포르민 단독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환자에서의 시타글립틴 추가 병용투여
24주의 위약 대조 임상시험에서 1일 2회 속방형 메트포르민을 복용하는 환자에 시타글립틴 100mg을 추가 병용투여 시 인과관계 평가와 관계없이 5% 이상의 빈도로 보고되고 위약보다 빈번히 보고된 이상반응은 없었다. 이상반응에 의한 치료중단은 위약군과 유사하였다.(시타글립틴 + 속방형 메트포르민 1.9%, 위약 + 속방형 메트포르민 2.5%).
위장관계 이상반응
시타글립틴과 속방형 메트포르민을 병용투여한 환자에서 보고된 특정 위장관계 이상반응의 발생빈도는 속방형 메트포르민을 단독 투여한 환자에서 보고된 것과 유사하였다(표 2 참조).

표 2. 시타글립틴 및 속방형 메트포르민을 병용투여한 환자에서 인과관계 평가와 관계없이 보고된 특정 위장관계 이상반응†

	환자수(%)					
	시타글립틴과 속방형 메트포르민 초기요법				속방형 메트포르민 단독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환자에서의 시타글립틴과 추가 병용투여	
	위약	시타글립틴 100mg 1일 1회	속방형 메트포르민 500 또는 1000mg씩 1일 2회†	시타글립틴 50mg씩 1일 2회 + 속방형 메트포르민 500 또는 1000mg씩 1일 2회†	위약 + 속방형 메트포르민 ≥1500mg/일	시타글립틴 100mg 1일 1회 + 속방형 메트포르민 ≥1500mg/일
	176명	179명	364명	372명	237명	464명
설사	7 (4.0)	5 (2.8)	28 (7.7)	28 (7.5)	6 (2.5)	11 (2.4)
구역	2 (1.1)	2 (1.1)	20 (5.5)	18 (4.8)	2 (0.8)	6 (1.3)
구토	1 (0.6)	0 (0.0)	2 (0.5)	8 (2.2)	2 (0.8)	5 (1.1)
복통†	4 (2.3)	6 (3.4)	14 (3.8)	11(3.0)	9 (3.8)	10 (2.2)

† 초기요법 시험에서 복통은 복부불편감을 포함한다.
† 메트포르민 저용량, 고용량을 투여한 환자의 통합자료
속방형 메트포르민, 설포닐우레아와 시타글립틴의 병용투여
글리메피리드의 속방형 메트포르민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의 시타글립틴 100mg 추가 병용투여 시 위약대조 24주 임상시험(시타글립틴 1160명, 위약 113명)에서 인과관계 평가와 관계없이 5% 이상의 빈도로 보고되고 위약보다 빈번히 보고된 이상반응은 저혈당(시타글립틴 3 환자(1%) 두통(시타글립틴 6.9%, 위약 2.7%)이었다.
속방형 메트포르민, 로시글리타존과 시타글립틴의 병용투여
로시글리타존과 속방형 메트포르민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의 시타글립틴 100mg 추가 병용투여 위약대조 24주 임상시험(시타글립틴 181명, 위약 97명)에서 인과관계 평가와 관계없이 5% 이상의 빈도로 보고되고 위약보다 빈번히 보고된 이상반응은 상기드라잔염(시타글립틴 5.5%, 위약 5.2%)과 비인두염(6.1%, 4.1%)였다. 54주의 결과에서는 상기드라잔염(시타글립틴 16.5%, 위약 6.2%)과 비인두염(11.0%, 9.3%), 말초부종(8.3%, 5.2%) 및 두통(5.5%, 4.1%)이었다.
속방형 메트포르민, 인슐린 시타글립틴의 병용투여
안정된 용량의 인슐린과 속방형 메트포르민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의 시타글립틴 100mg 추가 병용투여 위약대조 24주 임상시험(시타글립틴 229명, 위약 233명)에서 인과관계 평가와 관계없이 5% 이상의 빈도로 보고되고 위약보다 빈번히 보고된 이상반응은 저혈당(이었다(표 3 참조). 인슐린 양과 기간(±±속방형 메트포르민 동안 추가요법으로 시타글립틴을 투여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또 다른 24주 임상시험의 시타글립틴과 속방형 메트포르민을 복용한 환자에서 인과관계 평가와 관계없이 6% 이상의 빈도로 보고되고 위약보다 빈번히 보고된 이상반응은 저혈당(이었다.
저혈당
모든 연구(67)에서 저혈당 이상반응은 모든 증상이 있었던 저혈당 보고에 근거하였다. 혈당측정이 꼭 수반되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대부분의 저혈당 보고(77%)는 혈당측정 시 70mg/dL 이하였다. 시타글립틴과 속방형 메트포르민을 설포닐우레아 또는 인슐린과 병용투여했을 때 위니 이상의 저혈당 이상반응을 나타낸 환자의 비율은 위약군보다 높았으며(표 3 참조).

표 3. 시타글립틴과 속방형 메트포르민을 설포닐우레아 또는 인슐린과 병용투여한 위약대조 임상시험: 인과관계 평가와 관계없이 보고된 저혈당의 발생률*

	글리메피리드 또는 글리메피리드 및 속방형 메트포르민과의 추가 병용요법 (24주)	시타글립틴 100mg + 속방형 메트포르민 + 글리메피리드 (N=116명)	위약 + 속방형 메트포르민 + 글리메피리드 (N=113명)
총 발생수 (%)		19 (16.4)	1 (0.9)
비율(보고건/환자년수)†		0.82	0.02
중증의 저혈당 (%)†		0 (0.0)	0 (0.0)
	안정된 용량의 인슐린 또는 안정된 용량의 인슐린 및 속방형 메트포르민과의 병용요법 (24주)	시타글립틴 100mg + 속방형 메트포르민 + 안정된 용량의 인슐린(N=229명)	위약 + 속방형 메트포르민 + 안정된 용량의 인슐린(N=233명)
총 발생수 (%)		35 (15.3)	19 (8.2)
비율(보고건/환자-년수)†		0.98	0.61
중증의 저혈당 (%)†		1 (0.4)	1 (0.4)
	용량 조절 중인 인슐린 및 속방형 조절 중인 인슐린 및 속방형 메트포르민과의 병용요법 (24주)	시타글립틴 100mg + 속방형 메트포르민 + 용량 조절 중인 인슐린(N=286명)	위약 + 속방형 메트포르민 + 용량 조절 중인 인슐린 (N=283명)
총 발생수 (%)		71 (24.9)	107 (37.8)
비율(보고건/환자-년수)†		1.7	3.5
중증의 저혈당 (%)†		8 (2.8)	11 (3.9)

* 저혈당 이상반응은 모든 증상이 있었던 저혈당 보고에 근거하였으며 혈당 측정이 반드시 수반되는 것은 아니었다. † Intent-to-treat 군
† 총 발생수에 근거함 (한 시점이 여러 건을 보고할 수도 있음)
† 중증의 저혈당은 의학적 처치를 필요로 하거나 의식이 저하된 수준이거나 의식을 잃거나 발작하는 경우로 정의되었다.
저혈당 이상반응의 총 발생빈도는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으로 혈당이 충분히 조절되지 않는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위약군에서 0.8%, 시타글립틴 단독투여군에서 0.8%, 속방형 메트포르민 단독 투여군에서 0.8%, 속방형 메트포르민과 시타글립틴을 병용투여한 군에서 1.8%였다. 속방형 메트포르민 단독 투여군 혈당이 충분히 조절되지 않는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는 시타글립틴 추가 병용시 1.3%, 위약 추가 병용 시 2.1%였다.
로시글리타존과 속방형 메트포르민에 시타글립틴을 추가 병용투여한 연구에서 1975)가지 저혈당의 발생 빈도는 시타글립틴 투여군에서 2.2%, 위약 투여군에서 0.0%였고, 54주까지는 각각 3.9%와 1.0%였다.
혈력징후 및 심전도(ECG)
시타글립틴과 속방형 메트포르민 병용투여로 인하여 활력징후 또는 ECG(QTc 간격 포함)에서 의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췌장염
시타글립틴 100mg/일 군(n=6,428) 또는 이 에 상응하는 대조군(활성대조약 또는 위 약 약)(n=4,817)에 무작위 배정된 10,246명 환자에 대한 1차 이중맹검 임상시험의 결과를 통합 분석하였을 때, 각 군에서의 급성 췌장염의 발생률은 100 환자년수=(patient-years)당 0 이었다 (시타글립틴 군에서는 4/06 환자-년수 중 4명의 환자에서, 대조군에서는 3/42 환자-년수 중 4명의 환자에서 보고됨). TECOS 심혈관계 안전성 임상시험에서, 급성 췌장염의 발생률은 시타글립틴 군에서 100 환자-년수=(patient-years)당 0.11(23/7,332명, 26건), 위약 군에서 100 환자-년수=(patient-years)당 0.09(12/7,339명, 17건)으로 보고되었다.(1.2.3. 시타글립틴, 2)췌장염 참, TECOS 심혈관계 안전성 임상시험 참 참조)
시타글립틴
시타글립틴 단독요법에서 인과관계 평가와 관계없이 5% 이상의 빈도로 보고되고 위약보다 빈번히 보고된 이상반응 중 가장 빈번히 보고된 것은 비인두염이었다.
시판형 메트포르민
글리벤클라미드 요법에 시판형 메트포르민 또는 위약을 추가 병용투여한 24주 임상시험에서, 병용투여군에서 가장 빈번히 보고된 이상반응(5% 초과)이고 위약보다 높은 빈도로 보고된 이상반응은 저혈당(시판형 메트포르민 13.7%, 위약 4.9%), 설사(12.5%, 5.6%) 및 구역(6.7%, 4.2%) 이었다.
TECOS 심혈관계 안전성 임상시험 (TECOS: Trial Evaluating Cardiovascular Outcomes with Sitagliptin)
시타글립틴 심혈관계 안전성 임상시험의 ITT(Intent-to-treat)군에 시타글립틴을 매일 100mg또는 기저요법에 eGFR ≥ 30 및 (60mL/min/1.73㎡인 경우 매일 50mg을 투여받은 환자 7,332명과 위약을 투여받은 환자 7,339명이 포함되었다. 이 임상시험에서 시타글립틴 또는 위약은 당화혈색소(HbA1c) 및 심혈관계(CV) 위험 인자와 관련된 각각의 일반적인 치료와 추가로 투여했다. 시타글립틴 투여 시 주요한 심혈관계 질환에나 심부전으로 인한 입원 위험을 높이지 않았다(11. 전문가를 위한 정보 참 참조). 보고된 중대한 이상반응의 발생빈도는 시타글립틴 투여군에서 12.7%, 위약 투여군에서 12.8%로 유사하였다.
중증의 저혈당의 발생빈도는 시타글립틴 투여군에서 2.2%(180명, 100 환자-년수=(patient-years)당 0.70), 위약 투여군에서 1.9%(143명, 100 환자-년수=(patient-years)당 0.70)로 보고되었다. 인슐린 및/또는 설포닐우레아를 투여 받은 환자들 중, 중증의 저혈당 발생빈도는 시타글립틴 투여 군에서 2.7%(138/5,021명), 위약 투여군에서 2.5%(125/4,931명)였고, 인슐린 및/또는 설포닐우레아를 투여받지 않은 환자들 중, 중증의 저혈당 발생빈도는 시타글립틴 투여군에서 1.0%(22/2,311명), 위약 투여군에서 0.7%(18/2,408명)였다. 확진된 급성 췌장염의 발생빈도는 시타글립틴 투여군에서 0.3%, 위약 투여군에서 0.2%였다.
실험실적 검사
시타글립틴
시타글립틴과 속방형 메트포르민을 투여한 군에서 실험실적 이상반응의 발생률은 7.8%이고, 위약과 속방형 메트포르민을 투여받은 군에서는 8.7%으로 유사하였다. 임상시험에서 호중구의 증가에 기인한 빈혈구치의 약간의 증가(위약 투여시와 와 200cells/㎕ 차이 평균)가 관찰되었다. 이러 차이는 많은 연구에서 나타났으나 모든 연구에서 나타나 것은 아니며, 임상적시치의 변화가 임상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는 여겨지지 않는다.
12주간의 연구에서 위명의 만성 신장애환자와 37명의 중증도의 신장애환자가 시타글립틴 50mg으로 무작위 배정되었고 같은 정도의 신장애를 가진 1496명의 환자는 위약으로 배정되었다. 혈청 크레아티닌의 평균(표준오차) 증가는 시타글립틴 투여군에서 0.12mg/dL(0.004), 위약투여군에서 0.07mg/dL(0.001)이었다. 위약과 비교시 혈청크레아티닌 증가의 임상적 유의성은 알려지지 않았다.
메트포르민염산염
29주간의 메트포르민의 대조임상시험에서 약 7%의 환자에서 시험 전에 정상이었던 혈청 비타민 B_{12}이 임상적 증후 없이 정상 이하로 감소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러나, B_{12}-intrinsic factor complex로부터 B_{12} 흡수가 저해됨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되는 이러한 감소는 매우 드물게 빈혈을 수반하였으며, 메트포르민의 투여 중지나 비타민 B_{12}를 보충함으로써 빠르게 회복됐다.
2) 시판 후 이상반응
다음은 시타글립틴의 시판 후 메트포르민 병용여부와 관계 없이, 그리고 다른 혈당강하제와의 병용투여 여부와 관계없이 추가로 확인된 이상반응이다. 이 이상반응은 불특정 다수의 인구집단에서 자발적으로 보고된 것이기 때문에, 발생빈도를 신뢰성 있게 예측하거나 약물노출과의 인과관계를 확립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부종, 발진, 두드러기, 피부혈관염 및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을 포함한 바리성피부질환을 포함하는 과민반응(1. 경고, 시타글립틴, 1) 과민반응 및 2. 다음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말 것 참 참조); 간효소치 상승; 치명적/비치명적 출혈성 또는 괴사성 췌장염을 포함하는 급성 췌장염(1. 경고, 시타글립틴, 2) 췌장염 참 참조); 급성신부전(때로 투석을 요함)을 포함한 신기능의 악화; 상기도 감염; 비인두염; 변비; 구토; 두통; 현기증 및 장애를 동반하는 관절통(5. 일반적 주의, 1) 중증 및 장애를 동반하는 관절통 참 참조); 수포성 유사천포창(5. 일반적 주의, 17) 수포성 유사천포창 참조); 근육통; 시지통; 등 통증; 간질성 폐질환 소양증; 혈소판감소증; 횡문근융해

5. 일반적 주의
1) 유산산증: 유산산증은 드물기는 하나 심각하며, 이 약의 치료중 메트포르민이 축적되어 나타나는 대사성 혼병증이다.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는 대부분 급성신기능악화, 심폐질환 및 패혈증 등 상태의 연관되어 있으며 50%가 치명적이다. 유산산증은 조직의 pH와 전해질장애 저산소증이 있을 때, 당뇨병을 포함하는 비리샘리학적 상태와 경부도어 나타날 수 있다. 유산산증은 혈중 젖산 농도 증가(5mmol/L 초과), 혈중 pH저하((7.35), 음이온 간의 차이가 늘어나는 전해질 불균형 과 젖산/피루브산염의 비가 증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메트포르민이 유산산증의 원인이라고 여겨지는 경우, 메트포르민의 혈중농도는 일반적으로 5㎍/mL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메트포르민을 투여받은 환자에 있어서 유산산증의 발현에 대한 보고는 매우 적다(연간 환자 1,000명당 약 0.03건). 치명적인 경우는 연간 환자 1,000명당 약 0.015건). 보고된 경우는 주로 많은 내 · 외과적인 문제가 병합된 경우와 많은 약물의 복합투여 등의 상태에서, 내인적 신장질환과 신장 관류저하를 포함하는 신기능이 유의하게 저하된 당뇨병 환자에서 발생된 것이다(응급실장, 신장애 환자 참 참조). 유산산증의 위험은 신기능 저하의 정도와 환자의 나이에 따라 증가됨다(3. 금기사항, 2. 다음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말 것 참조).
덧붙여 메트포르민은 저산소증, 탈수, 패혈증과 관계된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각 투여를 중지해야 한다. 간기능이 손상된 경우 젖산 배설능력이 유의적으로 저하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간질환의 임상적 또는 실험실적 소견이 있는 환자의 경우 이 약을 투여하지 않는다. 알코올은 메트포르민이 젖산대사에 영향을 미치게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약을 투여 받는 동안 급 · 만성적인 알코올의 과량섭취는 피해야 한다.
유산산증의 시작은 미세로 구별이 어렵고 권태, 근육통, 호흡곤란, 무력증과 복부 통증과 같은 비특이적 증상들을 수반한다. 신증이 더 심해질 경우 체온저하, 저혈압과 저형성 서맥부정맥이 나타날 수 있다. 환자와 의사는 이러한 증상들의 중요성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며, 환자는 만약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의사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혈청 전해질, 케톤, 혈당, 혈중 pH, 젖산농도와 이 약의 혈중 농도도 유산산증을 확인하는데 유용할 수 있다. 또한, 유산산증의 의심이 큰 경우에는 젖산의 측정결과를 기대할 것 없이 필요한 처치를 한다. 특히, 투여 개시 초기 투여대을 증가한 경우에는 유산산증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주의한다. 치료 초기에 환자가 메트포르민의 특정 용량에서 안정되었면 흔히 위장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나, 후기에 나타나는 위장관 증상은 유산산증이나 다른 심각한 질병 때문일 수 있다.
메트포르민을 투여 받은 환자의 공복 시 혈액 혈장의 젖산 농도가 정상 상한치 이상이지만 5mmol/L 이하인 경우, 유산산증의 임박했다는 것을 나타내지 않으며, 잘 조절되지 않은 당뇨병이나 비만, 지나친 육체활동 또는 검체를 다루는 데 있어 기술적인 문제와 같은 다른 기전에 기인할 수 있다. 유산산증은 케톤산증(케톤뇨증과 케톤혈증)의 증거가 있는 대사성 산증이 나타나는 당뇨환자에서 의심해야 한다.
유산산증은 임상진단을 요하는 내과적 응급상황이다. 이 약을 투여한 환자에서 유산산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일반적 조치 외에 즉시 투여 중지하고 즉각 일반적인 보조요법을 실시해야 한다. 이 약은 투석이 가능하기 때문에(약효한 혈액학적 조건에서 170mL/분에 이르는 청소율), 산증을 정상 화하고 축적된 약물을 제거하기 위해 즉각적인 혈액 투석이 추천된다. 이러한 처치는 대부분 즉각적인 증상 호전과 결부를 가져온다.
2) 간장애 환자: 간장애는 유산산증의 몇몇 경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약은 임상적 혹은 실험실적으로 간질환의 증거가 있는 환자에게는 피해야 한다.
3) 신기능 모니터링: 메트포르민과 시타글립틴은 대부분 신장으로 배설되므로 임상적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기능을 더 자주 평가해야 한다. 특히 고령자, 신기능이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기능을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또한 신기능 손상과 같은 약물상호작용의 위험을 주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 약은 치료 시작 전과, 적어도 매년 신기능 검사를 하고 정상을 확인한 이후 정상치보다 낮은 경우에는 적어도 매년 2회(또는 임상적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다른 조건은 유산산증과 위험, 그것의 증상과 발생률 및 이는 소인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만약 설명할 수 있는 과호흡증, 근육통, 피로, 비정상적인 의식변화, 또는 다른 불특정적인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이 약을 중지하고 의료진에게 알리도록 하여야 한다.
환자에게 이 약을 투여하는 동안 급성이든 만성이든 과다한 알코올 섭취의 위험에 대해 조언해야 한다.
환자에게 이 약이 불완전하게 용해되어 대변으로 배설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만약 반복적으로 대변에서 이 약이 발견되면, 의료진에게 보고하도록 하여야 하고, 환자가 대변 중점제를 지속적으로 발견했다고 보고할 경우 의료진은 혈당이 적절히 조절되고 있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3) 초기와 정기적인 혈액학적 수치(예를 들어 헤모글로빈/헤마토크릿, 적혈구지수)와 신기능(혈청 크레아티닌)의 모니터링은 최소 1년을 기준으로 행해져야 한다. 메트포르민으로 치료 중 거대적혈모구성 빈혈이 드물게 관찰되며, 의심되므로 빈혈이 발견되면 B_{12}결핍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
4) 저혈당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약과의 병용투여
시타글립틴
다른 혈당저하제와의 병용투여가 전혀적으로 그렇듯이, 시타글립틴과 인슐린 또는 설포닐우레아를 병용 투여 시 저혈당이 관찰되었다(4. 이상반응 참 참조). 그러므로 인슐린분비촉진제에, 설포닐우레아, 메글리티니드와 같이 저혈당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인슐린분비촉진제의 감량을 고려할 수 있다.
메트포르민염산염
노령자: 신기능이 정상에서 저혈당은 메트포르민을 단독으로 투여하는 환자에서는 발생하지 않으나 혈당성분이 불충분할 때, 격렬한 운동 후 열량보충이 되지 않을 때 또는 다른 혈당저하제(설포닐우레아, 인슐린) 및 알코올(에탄올)을 병용투여 시 발생할 수 있다. 노령자 및 약물부족환자와 부신 또는 뇌하수체기능장애증 또는 알코올중독증은 특히 저혈당에 민감할 수 있다. 저혈당은 고령자, β-아드레날린 효능차단약을 복용하는 사람에서 인지되기 어렵다.
5) 중증 및 장애를 동반하는 관절통
DPP-4 저해제를 복용한 환자의 시판후 조사에서 중증 및 장애를 동반하는 관절통이 보고되었다. 약물 투여 이후 증상의 발생시기는 1일 후부터 수년 후까지 다양하였다. 약물 투여 중지 시에 증상은 완화되었다. 일부 환자에서는 동일한 약 또는 다른 DPP-4 저해제를 다시 복